

‘NO재판’ 금융권 확산… SBI·JT 등 일본계 바짝 긴장

경제전쟁 전면전

“일본 회사에 돈 맡길 이유 없다”
온라인 카페서 불매운동 일어

“경쟁력 문제 아니라 방법 없다”
협력사 피해 확산 시 방안 고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국내에서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이 퍼지고 있다.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은 불매운동의 여파가 번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과 JT전애·OSB·JT저축은행 등 일본계 저축은행은 최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2010년대 초반 일본 자본이 국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확대되면서 일본계 저축은행 또한



가파르게 성장했다. SBI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총자산은 7조6000억원으로 3년새 70%가 늘었고, JT전애·OSB·JT저축은행 또한 같은 기간 각각 57%, 40%, 165%의 자산증가율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계 저축은행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이 같은 성장 흐름이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국내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에는 일본 주주에 배당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 고객 “특판 해지”… 업계 “아직 타격 없어”

최근 일본계 저축은행이 판매한 특판 예금에 대해 온라인 카페에서는 “일본 회사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다”며 가입한 예금을 해지하는 등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타격을 체감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 일본계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객의 예·적금 등 자금이 빠지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며 “금융산업의 특성상 고객이 금리 조건에 따라서

상품을 옮기는 경향이 있고, 또 지금같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기 때문에 결국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만약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금융권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상품자체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일본계 저축은행의 예치금 축소가 서민 피해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금융권의 불매운동이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예금이 줄어든다면 대출채권도 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주요 차입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업피해 확대되면 금융지원 고려”
한편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어려워질 경우 저축은행 업계에

서도 여신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對)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업의 이익이 악화된다면, 그 피해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중견·중소 기업들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와 개인 사업자에 대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들의 기업 대출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중앙회의 2019년 3월 말 저축은행 금융통계현황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기업 대출은 3년 새 35%가 늘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견·중소기업 중에서 한일 무역갈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은 없어 당장의 금융 지원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며 협력사에게까지 여파가 닥친다면, 여신 지원 등의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Sh수협은행, 금융상품 종이서류 없앤다

디지털 창구 시스템 본격 도입

Sh수협은행은 6일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없애고 태블릿PC로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태블릿PC 전자서명을 통해 입출금통장과 체크카드 발급, 고객 확인사항 동의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앞서 수협은행은 지난 3월, 고객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빈도가 높은 70여종의 종이서식을 디지털 전자서식으로 전환하고, 통합단말과 태블릿



Sh수협은행은 6일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종이서류를 없애고 태블릿PC로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 디지털 창구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Sh수협은행

PC 연동, 디지털 문서관리시스템, 전자결제시스템도 구축을 완료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카드, 총상금 1억 ‘아 유 쏘?’ 이벤트

‘쏘’ 가입고객 1000만명 달성

신한은행은 모바일 플랫폼 쏘(SOL) 가입고객 1000만명 달성을 기념해 ‘천만 쏘 대축제, 아 유 쏘(Are you SOL)?’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쏘 가입 고객은 지난달 말 기준 983만 명이며, 오는 20일 전후로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쏘 가입 고객 1000만명 달성을 앞두고 시작하는 이번 이벤트는 ‘쏘 천만-데이

(Day)를 맞이하’와 메인 이벤트 ‘총상금 1억원에 도전하라’로 구성돼 있다.

‘쏘 천만-데이를 맞이하’는 가입 고객 1000만명이 달성되는 날짜를 맞추는 퀴즈 이벤트로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날짜를 맞춘 정답자 중 1명을 추첨해 상금 1000만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정답자들에게는 1000만원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제공한다. 쏘 가입 고객 1000만명이 달성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 달라진 은행권

윤리교육… 신문고… 사이버연수 ‘총력’

신한은행 내부자신고제도·신문고
KB국민은행 올바른 제보제도 운영
우리은행 직장 내 갈등제로 캠페인
KEB하나은행 사이버 의무 연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도 대책 마련에 부진한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내·외부 채널을 통해 직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 및 홈페이지 내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체적인 윤리강령 사례를 팝업 동영상으로 제작해 일본, 미국, 베트남 등 해외 현지법인과 영업점에 배포하며, 사내 방송을 통한 전 직원 대상 윤리준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직원 대상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바른 제보 제도’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한 부당한 처우를 신고·접수하도록 했다. 올바른 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관련 안내판 뒤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보 제도는 내부채널과 외부채널을 통해 제보받으며, 제보직원의 신분노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가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우리은행은 ‘두, 돈트(DO, DON'T) 캠페인’을 통해 매일 직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강조됨에 따라 창구간 협업, 업무 편중 개선을 테마로 정했다.

우리은행은 또한 직장 내 갈등제로 캠페인인 ‘직장의 품격’을 실시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직장 매너 관련 에피소드를 행내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이어 하반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은행이 앞장서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내용과 해결 사례 등을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한다. 또한 8월 말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사이버 의무 연수를 진행해 수평적인 근로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직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성희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사내 신고제 ‘건강한 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 회사의 관련부서 또는 준법지원부서에서 처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캠페인과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홍민영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142개사 도전

금융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142개 사가 도전장을 내민다. 디지털 혁신 역량을 확대하려는 금융회사의 신청이 늘어나면서 샌드박스 신청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를 조사한 결과 기존 금융회사(41개사) 91개서비스, 핀테크 회사(101개사) 123개 서비스가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나유리 기자

우리은행, 광복절 맞아 특판예금출시… 연 1.7%금리 제공

6개월 만기시 연 0.8%p 적용

우리은행은 8·15 광복절 74주년과 우리은행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특판예금을 출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8일 광복 74주년

을 기념해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출시한다. 저축기간은 6개월이며, 만기 해지시 연 0.8%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으로 최고 연 1.7%의 금리가 제공된다. 최소 가입금액은 개인당 100만원으로 총 3000억원 한도내에서 선착순 마감한다.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시즌 한정 텀블러 및 퍼플폴드컵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우리은행은 또한 영화 ‘봉오동 전투’ 관람권 증정 이벤트와 ‘8월생 우리아이 행복나눔’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민영 기자